



¹흔히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²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와,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막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즉 소극적 자유가 그것이다. ³이렇게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를 구분하는 견해는 적극적 자유를 속박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소극적 자유만을 속박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⁴하지만 이것은 속박 개념의 분석에 의해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

⁵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속박들 사이에 두 가지 중요한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⁶그 구분이란 적극적 속박과 소극적 속박, 그리고 내적 속박과 외적 속박 간의 구분이다. ⁷나아가 이러한 속박들은 종횡으로 얹혀 네 개의 범주, 곧 내적인 적극적 속박, ㉠ 내적인 소극적 속박, 외적인 적극적 속박, 그리고 외적인 소극적 속박으로 나눌 수 있다.

⁸적극적 속박은 어떤 것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 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⁹협박, 방해, 신체의 구속이 그런 속박의 예이다. ¹⁰그에 반해 소극적 속박은 어떤 것이 없어서 장애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¹¹예컨대, 돈, 힘, 기술, 지식 등의 부족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다. ¹²이러한 조건들은 부재하는 조건이란 점에서 소극적이다.

¹³내적 속박과 외적 속박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는 문제는 자아의 경계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달려 있다. ¹⁴만일 자아를 양심이나 이성으로 좁게 한정하면, 거의 모든 속박들이 외적인 것이 되어 버리는 문제점이 있다. ¹⁵그래서 내적 속박과 외적 속박의 구분을 현실에 적용하려면, 단순히 공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¹⁶이 경우 외적 속박은 사람의 심신 밖에서 오는 것이고, 그 밖의 모든 속박들은, 근육통이든 두통이든 저급한 욕망이든 그 자신에게는 다 내적인 것이 된다.

¹⁷이렇게 속박을 구분하고 나서, ‘소극적 / 적극적 속박’과 ‘소극적 / 적극적 자유’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¹⁸소극적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란 무언가가 없어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며, 이것은 하지 못하던 것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¹⁹그러므로 그것은 소정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의 현존인 것이다. ²⁰조건의 현존이 어떤 사람에게 외적일 때에는 기회라 ㉢ 하고 내적일 때에는 능력이라고 한다. ²¹하지만 그런 조건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다 소극적 속박인 것은 아니다. ²²그 조건의 부재가 주체에게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는 그런 것들이 속박이다. ²³또한 속박은 자연적인 무능력과도 구분되어야 한다. ²⁴자연의 법칙이

나 신체적 구조로 말미암아 실현이 불가능한 비현실적 욕구와 관련된 부재는 속박으로 볼 수 없다.

²⁵만일 적극적 요인만을 속박으로 간주한다면, 고급 승용차를 사고 싶은 극빈자의 경우 그가 고급 승용차를 사고 싶은 욕구에 대한 적극적 속박이 없어서 자유롭다고 말해야 하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²⁶왜냐하면 그에게는 고급 승용차를 살 돈이 없으므로 돈의 부족이라는 소극적 속박을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²⁷마찬가지로, 만일 속박을 외적 요인들에만 국한한다면, 고열로 심하게 아픈 사람은 일하러 가지 못하게 하는 외적 속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²⁸왜냐하면 그의 내부에 그가 일하러 가지 못하게 하는 속박이 있기 때문이다. ²⁹그래서 내적 속박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³⁰이처럼 우리가 소극적 속박과 내적 속박을 인정한다면, 두 가지 자유 모두를 속박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³¹따라서 나로 하여금 X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없다면 X를 할 자유가 있다. ³²역으로, 내가 X를 할 자유가 있다면, 아무 것도 나로 하여금 X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 ³³요컨대 속박이 없다면 자유로운 것이고, 자유가 있다면 속박이 없는 것이다.

01 윗글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은?

- ① 적극적 속박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극적 속박도 없다.
- ② 소극적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고 한다.
- ③ 적극적 자유이든 소극적 자유이든 속박의 부재로 설명된다.
- ④ 속박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⑤ 소극적 자유는 기회로, 적극적 자유는 능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02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 ① 스키를 타고 싶는데 고소 공포증이 있어서 타지 못하는 경우
- ② 스키를 타고 싶는데 스키를 타러 갈 돈이 없어 타지 못하는 경우
- ③ 스키를 타고 싶는데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겨 타지 못하는 경우
- ④ 스키를 타고 싶는데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타지 못하는 경우
- ⑤ 스키를 타고 싶는데 스키 타는 방법을 몰라서 타지 못하는 경우

03 윗글에서 설명한 '속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펜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것은 기회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적극적 자유는 '외적인 적극적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 ③ 인간의 자아를 이성으로 한정한다면, 대부분의 '속박'이 외적이다.
- ④ 어떤 것의 존재로도, 어떤 것의 부재로도 '속박'이 발생할 수 있다.
- ⑤ '내적 속박'과 '외적 속박'은 단순한 공간적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04 <보기>가 뜻하는 바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독수리처럼 날 수 없고 고래처럼 헤엄칠 수 없는 것은 자유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 ① 자유롭지 못해서 생기는 무능력과 자연적인 무능력을 구분해야 한다.
- ② 자유를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욕구들에 관련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 ③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가 아닌 테서 오는 욕구의 좌절은 속박의 문제가 아니다.
- ④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자유롭다고 보아야 한다.
- 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해야 하며, 자유는 할 수 있는 것의 범위 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05 ㉡, ㉢의 의미로 쓰인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① ㉡ : 나는 점심을 먹은 후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 : 동물의 세포를 배양해서 만드는 고기를 '배양육'이라고 한다.
- ② ㉡ : 나는 운동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 : 새로 산 귀걸이를 하고 약속에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 ③ ㉡ : 그는 머리를 항상 창 쪽으로 하고 잠을 자는 습관이 있다.
㉢ : 나는 이번 연극에서 주인공을 하게 되었다.
- ④ ㉡ : 동생은 오늘은 자신이 밥을 하겠다고 말했다.
㉢ : 그는 자신을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 ⑤ ㉡ : 나는 상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되었다.
㉢ : 우리는 버스 정류장에서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¹알파고가 인간 바둑 최고수를 꺾은 사건은 자연 세계에서 인간의 특권적 지위를 문제 삼고, 윤리학의 인간 중심적 전통에 도전한다. ²우리는 이제 인간과 같은 또는 더 뛰어난 지능을 지닌 인공 지능도 ㉔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하는 물음에 직면하는 것이다. ³이 물음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성의 핵심을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 공포와 동정심 등의 감정적인 부분에서 찾으려 한다. ⁴예컨대 알파고는 경쟁에서 이겨도 승리를 기뻐하지 못하며, 우리도 알파고를 축하하며 함께 축하를 들 수 없다. ⁵인간의 특정 작업이 인공 지능을 갖춘 로봇에 의해 대체되더라도 인간의 감정을 읽고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작업은 대체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⁶하지만 최근에는 감정을 가진 로봇, 곧 인공 감정을 제작하려는 열망이 뜨겁다. ⁷인간의 돌봄과 치료 과정을 돕는 로봇은 사용자의 세밀한 필요에 더 잘 부응할 것이다. ⁸사람들은 인간과 정서적 교감을 하는 로봇을 점점 가족 구성원처럼 여기게 될지도 모른다. ⁹그러면 로봇은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 ¹⁰로봇을 도덕 공동체에 받아들여야 하는가? ¹¹이 물음에 답하려면 인간에게 감정의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¹²인공 지능의 연구도 그렇지만, 인공 감정의 연구도 인간의 감정을 닮은 기계를 만들려는 시도이면서 동시에 ㉕ 감정 과정에 대한 계산 모형을 통해 인간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¹³감정은 인지 과정과는 달리 적은 양의 정보로도 개체의 생존과 항상성 유지를 가능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¹⁴또 무엇을 추구하고 회피할지 판단하도록 하는 동기의 역할을 한다. ¹⁵한편 우리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서로의 신체 반응이나 표정을 통해 미묘한 감정을 읽어내고 그에 적절히 반응하며, 그런 정서적 교감을 통해 공동체를 유지한다.

¹⁶그러나 로봇이 정말로 ㉖ 이러한 감정 경험을 하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¹⁷철학자들은 인공 지능이 인간과 똑같은 인지적 과정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지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¹⁸인공 감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감정을 입력 자극에 대한 적절한 출력을 내놓는 행동들의 패턴이 아니라 내적인 감정 경험으로 이해한다면 인공 감정이 곧 인간의 감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 ¹⁹인간만 보더라도 행동의 동등성은 ㉗ 심성 상태의 동등성을 함축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행동을 하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 역도 가능하다. ²⁰로봇의 경우에는 행동의 동등성이 곧 심성 상태의 존재성조차도 함축하지 않는다.

²¹로봇이 감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내적인 감정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²²그러나 거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전제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²³첫째, 감정을 가진 개체는 기본적인 충동이나 욕구를 가진다고 전제된다. ²⁴목마름, 배고픔, 피로감 등의 본능이나 성취욕, 탐구욕 등이 없다면 감정도 없다. ²⁵둘째, 인간과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 인간이 가지는 것과 같은 감정을 가지려면, 로봇은 최소한 고등 동물 이상의 일반 지능을 가지고, 생명체들처럼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²⁶그런데 복잡한 환경에 적응하여 행위할 수 있는 일반 지능을 가진 인공 지능에 도달하는 길은 아직 멀다. ²⁷현재 인공 지능이 ㉘ 제한적인 영역에서 주어진 과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출하는지 이외의 문제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있기 때문이다. ²⁸그렇다면 ㉙ 진정한 감정이 없는 로봇을 도덕 공동체에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0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공 지능과 인공 감정을 연구하면 인간의 지능과 감정까지 더 잘 알게 된다.
- ② 인공 지능에서 행동이 하는 역할은 인공 감정에서 내적인 감정 경험이 맡는다.
- ③ 인공 지능에 회의적인 철학자는 의미의 이해가 지능의 본질적 요소라고 생각한다.
- ④ 인간성의 핵심이 로봇에게도 있다면 로봇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 ⑤ 인공 감정은 현실적으로 만들기 어렵고 만들어도 인간과 같은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02 읽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로봇 A가 바둑에서 최고수를 꺾고 우승한 뒤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인간 B가 함께 기쁨을 표현했다.

- ① A에게 누군가를 이기려는 본능이 있다면 A의 기쁨이 진정한 감정일 가능성이 있겠군.
- ② A의 기쁨이 적절한 입력 자극과 출력에 의한 것이라면 A의 기쁨은 진정한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군.
- ③ A가 바둑 이외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인간처럼 업무를 잘 수행한다면 A의 기쁨이 진정한 감정일 가능성이 있겠군.
- ④ A나 B 모두 기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기뻐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겠군.
- ⑤ B가 A의 기쁨을 알게 된 것은 A의 신체 반응이나 표정 때문이겠군.

03 ㉠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로봇이 감정에 휩싸인다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 ② 인간처럼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인공 감정 연구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지 않을까?
- ③ 인공 지능도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인공 지능이 도덕적 고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 ④ 도덕 공동체에 있으면 내적 감정을 갖겠지만, 내적 감정을 갖는다고 해서 꼭 도덕 공동체에 포함해야 할까?
- ⑤ 비행기와 새의 비행 방식이 다르듯, 로봇은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감정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04 읽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철학자 존 설은 인공 지능을 유용한 수단 내지 도구로 설계된 ㉡ 약한 인공 지능과 복잡한 정보 처리 프로그램으로 인간의 마음을 구현한 ㉢ 강한 인공 지능으로 구분하였다. 약한 인공 지능은 기능이 특정 문제를 다루는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인간과 지능적으로 유사한 행동과 결정을 할 수 있다. 반면, 강한 인공 지능은 알고리즘과 방대한 데이터 처리를 토대로 모든 영역에서 인간과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강한 인공 지능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감정을 느끼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인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 ① <보기>의 ㉡는 제한적인 영역에서 주어진 과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평가될 수 있겠군.
- ② <보기>의 ㉢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사고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 공동체에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군.
- ③ <보기>의 ㉢는 인간과 상호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고등 생명체처럼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스스로 적응할 수 있어야겠군.
- ④ <보기>의 ㉢는 충동이나 욕구를 갖지 않더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감정을 느낀다면, 이는 내적인 감정이 생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인간의 돌봄과 치료를 돕는 로봇이 인간의 상태 정보가 입력되면 감정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출력한다 하더라도, 이 로봇은 <보기>의 ㉢보다는 ㉡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야겠군.

05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도덕 공동체에 속하는
- ② ㉡ : 로봇의 내적인 감정 생성을 통해
- ③ ㉢ : 감정을 통해 동기를 얻거나 교감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 ④ ㉣ : 서로 같은 감정을
- ⑤ ㉤ : 감정을 갖는지와 같은 문제들은

이 SET는 이전 지문과 마찬가지로 글의 기본 구조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 우선 글의 핵심 문제(P)에 따라 지문을 관통해야 한다. 첫 단락에서는 자유를 적극적, 소극적으로 나누는 이분법이 자유와 속박의 관계를 제대로 명시하지 못하는 문제(P)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박 개념을 분석하여 속박을 네 범주로 구분하고, 이를 통해 자유를 이분법으로 이해하는 것의 한계를 밝힌다(S). 그리고 문제에서는 글 중간에 제시되는 이항대립의 구조와 극단의 범주를 출제의 POINT로 삼는데, 이는 수능용 지문은 아니어도 독서 문제 출제에서 평가원이 일관된 입장에 따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우리는 시험장에서 독서 지문을 가지고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다. 평가원과 문제를 놓고 게임을 하는 것이다. 그 게임의 규칙은 우리의 생각보다 단순하고 일관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이 지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자. 1~2번 문장에서는 사람들이 흔히 적극적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이고, 소극적 자유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라며 두 개를 구분짓는 통념을 제시한다. 3번 문장에서 알 수 있듯, 이 통념에 따르면 적극적 자유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고 소극적 자유만이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4번 문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제기하며 '속박 개념'을 분석하여 비판하고자 한다. 필자는 '둘 중 하나만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라 보는(3번 문장) 것이 아니라, 둘 다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로 설명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2~4문단에서는 '속박 개념의 분석'을 통해 속박을 적극적 속박/소극적 속박, 외적 속박/내적 속박으로 분류한다. 기존에는 적극적 속박과 외적 속박만을 인정하며 속박의 범위를 좁게 보았기에, '속박으로부터의 자유'가 소극적 자유만을 뜻하는 한계가 발생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속박을 세분화한 것이다. 그리고 5~6문단에서는 예시를 들어 적극적 속박뿐만 아니라 소극적 속박을, 외적 속박뿐만 아니라 내적 속박을 속박으로 인정하게 되면, 소극적 자유는 물론이고 적극적 자유 역시 속박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결론적으로 7문단의 33번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필자는 기존에 두 자유 중 하나만을 속박으로 연결한 견해를 부정하

고, '속박이 없다면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다면 속박이 없는 것'이라며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모두 속박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기존 견해	필자의 견해
인정하는 속박	적극적 속박, 외적 속박	적극적 속박/ 소극적 속박, 외적 속박/내적 속박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두 종류만 속박으로 본다면, 소극적 자유만 가능	네 종류 모두 속박으로 인정한다면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모두 가능

01 ★★☆☆

정답 ③

정답 해설

3번 문장에 따르면 자유를 구분하는 일반적 통념에서 '속박'은 '소극적 자유'만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그러나 4번 문장에서 필자는 '속박'으로 '소극적 자유'만을 설명하는 일반적 통념을 비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본문에서 '속박 개념'의 분석을 통해 '소극적 속박'과 '내적 속박'의 존재를 도출하고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모두에 속박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그리고 30번 문장에서 '이처럼 우리가 소극적 속박과 내적 속박을 인정한다면, 두 가지 자유 모두를 속박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정리하고 있다. 필자는 속박 개념의 분석을 통해 속박을 세분화하고 기존보다 범위를 넓혀서, 모든 자유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싶은 것이다. 따라서 해당 선지가 윗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 8번 문장에 따르면 '적극적 속박'은 '어떤 것이 있어서 원하는 것을 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적극적 속박'이 없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막는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10번 문장에 따르면 '소극적 속박'은 '어떤 것이 없어서 원하는 것을 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소극적 속박'이 없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하는 데 필요한 '어떤 것'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25번 문장의 예시에서 '극빈자'는 '고급 승용차'를 사는 행위를 막는 '어떤 것'이 없기에 '적극적 속박'에서는 자유롭다. 한편 '고급 승용차'를 사는 데에 필요한 '어떤 것'인 '돈'이 없기에 '소극적 속박'에 놓여 있다. 이처럼 적극적 속박이 없어도 소극적 속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선지의 진술은 윗글의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② 2번 문장에 따르면 자유를 설명하는 일반적 통념에서 ‘소극적 자유’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이다. 2문단 이후에서는 ‘속박 개념’을 분석하며 ‘속박’을 ‘적극적/소극적 속박’, ‘내적/외적 속박’으로 구분하는데, 30번 문장에서 ‘소극적 속박과 내적 속박을 인정한다면, 두 가지 자유 모두를 속박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소극적 속박’은 속박 개념의 분석을 통해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극적 자유에는 단지 소극적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적극적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도 포함되기 때문에 ‘소극적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고 한정하는 선지의 서술은 윗글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④ 33번 문장에서는 윗글의 내용을 정리하며 ‘자유’와 ‘속박’의 관계를 ‘속박이 없다면 자유로운 것이고, 자유가 있다면 속박이 없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즉 ‘속박의 부재가 곧 자유’이므로 ‘속박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는 윗글의 주장에 따르면 불가능한 경우이다.
- ⑤ 19, 20번 문장에서는 ‘소극적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소정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의 현존’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공간’을 기준으로 ‘기회’와 ‘능력’으로 구분한다. 6문단에서는 ‘속박 개념’을 ‘소극적 속박’과 ‘내적 속박’까지로 확장하고 ‘두 가지 자유 모두를 속박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7문단에서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 자유’의 개념을 ‘적극적 자유’에도 적용하여, 일체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를 아우르는 ‘자유’, 그 자체라는 7문단의 논리가 도출된다. 결국 ‘소극적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인 ‘기회’와 ‘능력’은 윗글의 주장에 따르면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다.

02 ★★★★★

정답 ⑤

정답 해설

‘㉠ 내적인 소극적 속박’은 일단 ‘내적 속박’과 ‘소극적 속박’으로 나누어 판단하고, 다시 판단들을 종합하면 이해가 된다. 10번 문장에서 ‘소극적 속박은 어떤 것이 없어서 장애가 되는 경우’라 했다. 15번, 16번 문장에서 ‘내적 속박’은 ‘사람의 심신 안에서 오는 모든 속박’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사람의 심신 안에서 어떤 것이 없어서 장애가 되는 경우’가 ‘내적인 소극적 속박’이고, 20번 문장에 따르면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선지의 사례는 ‘몰라서’, 즉 ‘없어서 문제인 경우’이다. 따라서 ‘소극적 속박’이다. 그런데 없는 것이 ‘스키 타는 방법’, 즉 ‘심신 안에’ 있어야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적 속박’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원하는 것을 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경우’

다. 이때 고소공포증은 심리적인 것이므로 ‘내적 속박’이고,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경우’이므로 8번 문장에서 보듯 ‘적극적 속박’이라 할 수 있다.

- ②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서 장애가 되는 경우’이므로 ‘소극적 속박’이고, 돈은 ‘심신 밖에서 온 것’이므로 ‘외적 속박’이다.
- ③ 두통이 ‘생겨서 문제인 경우’는 자기 심신과 관계있는 것이므로 ‘내적 속박’이다. ‘있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 속박’에 해당한다.
- ④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는 ‘외적 속박’이고, ‘없어서 문제’이므로 ‘소극적 속박’에 해당한다.

03 ★★★★★

정답 ②

정답 해설

30번 문장에서 ‘소극적 속박과 내적 속박을 인정한다면, 두 가지 자유 모두를 속박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속박 개념에서는 적극적 속박과 외적 속박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속박들로 설명할 수 있는 자유는 소극적 자유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외적인 적극적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20번 문장에서 ‘조건의 현존이 어떤 사람에게 외적일 때에는 기회라 하고 내적일 때에는 능력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때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은 15번 문장에 따라 ‘공간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펜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것’은 심신 밖이므로 외적이고, 이는 ‘기회’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③ P에 주목해야 한다. 14번 문장을 보면 자아를 양심이나 이성으로 좁게 한정했을 때 거의 모든 속박들이 외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적 속박과 외적 속박의 기준을 단순히 공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자아를 이성으로 한정지으면 대부분의 ‘속박’이 외적이 되어버리는 문제점이 생긴다.
- ④ 8~10번 문장을 보자. 적극적 속박의 경우 ‘어떤 것이 있어서’ 생기는 속박이다. 한편 소극적 속박의 경우 ‘어떤 것이 없어서’ 생기는 속박이다.
- ⑤ ③번 선지에서의 P에 대한 S로 연결되는 선지이다. 자아를 좁게 한정했을 때 거의 모든 속박들이 외적인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적 속박과 외적 속박을 단순히 ‘공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S이다.

04 ★★★★★

정답 ④

정답 해설

〈보기〉에서 ‘독수리처럼 날 수 없고 고래처럼 헤엄칠 수 없는 것’은 24번 문장에서 언급한 ‘자연의 법칙이나 신체적 구조로 말미암아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다. 3문단에 따르면 이 경우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이지만, ‘속박’으로 볼 수 없는 ‘자연적인 무능력’에 해당한다. 즉 〈보기〉는 ‘속박’이 아닌 이유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상태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선지의 내용은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상태를 ‘자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유를 ‘자연의 법칙이나 신체적 구조’에 따라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는 윗글의 내용과는 상충한다.

오답 피하기

- ① 23번, 24번 문장에서 ‘속박은 자연적인 무능력과도 구분’해야 하며, ‘신체적 구조로 말미암아 실현이 불가능한 비현실적 욕구와 관련한 (조건의) 부재는 속박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람이 ‘독수리처럼 날지 못하고 고래처럼 헤엄칠 수 없는 것’은 ‘속박(자유롭지 못해서 생기는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신체적 구조로 말미암은) 자연적인 무능력’ 때문이다.
- ② 〈보기〉에서 제시하는 ‘독수리처럼 나’는 것과 ‘고래처럼 헤엄치’는 것은 지문에 따르면 ‘실현이 불가능한 비현실적 욕구’로, 자유와 무관하다. 이러한 (조건의) 부재는 속박으로 볼 수 없고 속박이 없는 데서 자유를 말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 ③ 23, 24번 두 문장에서 ‘속박은 자연적인 무능력과도 구분’해야 하며, ‘신체적 구조로 말미암아 실현이 불가능한 비현실적 욕구와 관련한 (조건의) 부재는 속박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인간이 독수리처럼 날지 못하고 고래처럼 헤엄칠 수 없는 것은, 인간 이외의 존재가 아닌 데서 오는 욕구의 좌절임은 타당하고, 이는 신체적 구조로 말미암아 실현 불가능한 욕구이므로 속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 ⑤ 다섯 번째 단락에서 자유는 할 수 있는 것, 즉 현실적 욕구와 관련지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독수리나 고래처럼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 곧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 ‘원하는 것’의 영역에 속한다.

05 ★★★★★

정답 ①

정답 해설

㉓는 ‘사람이나 동물, 물체 따위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㉔는 ‘이름 지어 부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①이다.

오답 피하기

- ② 선지에서 제시된 ㉓의 예시는 ‘사람이나 동물, 물체 따위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㉔의 예시는 ‘장신구나 옷 따위를 갖추거나 차려입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선지에서 제시된 ㉓의 예시는 ‘어떠한 방향으로 두다.’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㉔의 예시는 ‘어떤 지위나 역할을 맡거나 책임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④ 선지에서 제시된 ㉓의 예시는 ‘먹을 것, 입을 것, 땀감 따위를 만들거나 장만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㉔의 예시는 ‘어떤 직업이나 분야에 종사하거나 사업체 따위를 경영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⑤ 선지에서 제시된 ㉓의 예시는 ‘사건이나 문제 따위를 처리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㉔의 예시는 ‘어떤 일을 그렇게 정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2022 LEET에 출제되었던 지문이다. 2016년에 세상을 뜨겁게 달궜던 알파고에 관한 내용이 첫 문장부터 등장해서 굉장히 흥미로웠을 것이다. 지문은 크게 2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을 것이다. 우선 2번 문장의 Q에 대한 동의와 비동의의 구별, 10번 문장의 Q2에 대한 28번 문장의 A2가 도출되기까지의 3~5 문단에 걸친 일련의 사고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4번째 문제가 <보기>를 통한 확장된 이항 대립 형태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지문의 중심 화제였던 '인공지능'을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으로 구체화하여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지연(지문과의 연관성)이를 생각하면서 둘 사이의 '차이'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 문제의 경우 중심 구조와 지문에서 제시되었던 조건문도 활용이 되는데, 혹시 이 문제를 틀렸다면 TWO TRACK, 즉 중심 구조와 세부 구조를 잘 잡았는지 본인의 독해 습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01 ★★☆☆☆

정답 ②

정답 해설

18번 문장에 따르면 감정을 내적인 감정 경험이라고 이해한다면 인공감정은 입력 자극에 대한 적절한 출력일 뿐이므로 진정한 감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20번 문장에서는 로봇의 경우 행동의 동등성이 심성 상태의 존재성조차도 함축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인공 지능에서 행동이 하는 역할을 인공 감정에서 내적인 감정 경험이 맡는다는 서술도 옳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12번 문장에서 인공 감정의 연구는 인간의 감정을 닮은 기계를 만들려는 시도임과 동시에 인간의 감정을 깊게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17번 문장에서 철학자들은 인공 지능이 인간과 동일한 인지적 과제를 수행했다라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지능이 아니라고 주장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2, 3번 문장에 의하면 인공 지능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는 물음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공 지능이 인간성의 핵심인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를 반대한다.

따라서 인간성의 핵심(감정)이 로봇에게도 있다면 로봇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 ⑤ 23, 25번 문장을 통해 인공 감정을 현실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2가지 이유를 알 수 있고 16번 문장에서 로봇이 감정 경험을 실제로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2 ★★☆☆☆

정답 ②

정답 해설

18번 문장에서 감정이 내적 감정 경험이라고 이해한다면 인공감정은 입력 자극에 대한 적절한 출력일 뿐이므로 진정한 감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즉, A의 기쁨이 적절한 입력 자극과 출력에 의한 것이라 본다면 이것은 진정한 감정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18번 문장의 전반부를 가지고 감정을 입력 자극에 대한 적절한 출력을 내놓는 행동들의 패턴으로 전제한다면 2번 선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는 지문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감정을 단순히 적절한 출력을 내놓는 행동으로 보는 것에 반대하여, 감정을 내적인 감정 경험으로 보는 시각을 제시하고, 그러나 인공감정은 이 수준이 될 수 없으므로 감정을 구현할 수 없다는 게 글 전체의 맥락이다. 즉, 진정한 감정이라면 그것을 내면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데, 2번 선지에서는 반응이라는 결과만 만족시킬 뿐, 내적인 이해라는 원인을 만족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23번 문장에 따르면 내적인 감정 생성의 전제 조건 첫 번째는 기본적인 충동이나 욕구를 갖는 것으로, A가 이기려는 본능이 있다면 해당 조건을 만족하므로 A의 기쁨을 진정한 감정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
- ③ 25번 문장에 따르면 내적인 감정 생성의 전제 조건 두 번째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적응하는 일반 지능을 가진다는 것으로, A가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처럼 업무를 잘 수행한다면 해당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A의 기쁨을 진정한 감정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 ④ A의 감정의 경우는 18번 문장에서 말하는 입력 자극에 의한 적절한 출력일 뿐이므로, 입력 자극에 따라 기뻐하는 행동을 보일 수는 있다. B의 경우는 19번 문장의 '인간만 보더라도 행동의 동등성은 심성 상태의 동등성을 함축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행동을 하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 역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통해 행동의 동등성이 심성 상태의 동등성을 포함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기쁘지 않으면서 기뻐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
- ⑤ 15번 문장에서 인간은 서로의 신체 반응이나 표정을 통해 미묘한 감정을 읽어내고 그에 적절히 반응한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록 A가 진정한 인공 감정을 가지지는 않지만, B는 A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A를 보고 기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03 ★★★★★

정답 ⑤

정답 해설

4문단에서는 인간의 감정과 인공 감정을 이항 대립적으로 서술하며 인공 감정은 인간 감정과 달리 내적 감정 경험이 아니므로 진정한 감정이 아니라고 했다. 즉 진정한 감정은 인간의 감정처럼 내적 감정 경험이 되어야하는데, 5문단에서는 로봇이 내적 감정이 생성되는 전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따라서 ①의 근거는 인공 감정은 인간이 감정을 느끼는 방식으로 감정을 생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로봇의 감정은 인간의 감정과 다른 방식으로 감정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04 ★★★★★

정답 ④

정답 해설

〈보기〉에서 강한 인공 지능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뒷글의 23번 문장에 따르면, 로봇이 내적으로 감정을 생성하거나 감정을 가진 개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충동이나 욕구를 가지는 것으로 전제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보기〉의 강한 인공 지능이 충동이나 욕구를 갖지 않는다고 전제하면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감정을 느끼더라도 뒷글의 조건을 충족하는 의미에서는 내적인 감정을 생성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보기〉의 강한 인공 지능이 '느끼는' 감정은 21번 문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감정을 인식'하는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하면, 〈보기〉와 해당 선지에서 말하는 강한 인공 지능을 내적인 감성이 생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보기〉에 따르면, 약한 인공 지능은 특정 문제나 영역에 국한되지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따라 처리하는 인공 지능을 말한다. 한편 뒷글의 27번 문장에 따르면, 현재 인공 지능 연구는 제한적인 영역에서 주어진 과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출하는지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② 〈보기〉에 따르면, 강한 인공 지능은 알고리즘과 방대한 데이터 처리를 기반으로 모든 영역에서 인간과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한편 뒷글의 21번 문장에 따르면, 로봇이 도덕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내적인 감정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또 23번 문장에 따르면

로봇이 내적인 감정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고등 동물 이상의 일반 지능을 가져야 한다. 선지에서 인간과 마찬가지로 사고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한 것은 이 조건과 맥락이 상통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도덕 공동체에 속할 수 있다는 5문단의 내용을 고려하면,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③ 〈보기〉에 나오는 강한 인공 지능은 인간처럼 사고하고 느끼며,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뒷글의 21번 문장에 따르면, 로봇이 인간과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감정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25번 문장에서 설명하는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고등 동물 이상의 일반 지능을 토대로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⑤ 〈보기〉에서 약한 인공 지능은 특정한 영역을 다루는 데 국한된 기능을, 강한 인공 지능은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편 뒷글의 7번 문장에 제시된 인간의 돌봄과 치료를 돕는 로봇은 인간에 대한 돌봄과 치료라는 특정 영역을 다루는 데 국한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뒷글의 18번 문장에 따르면 감정을 입력 자극에 대한 적절한 출력을 내놓는 행동들의 패턴이 아니라 내적인 감정 경험으로 이해한다면 인공 감정을 곧 인간의 감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즉 선지의 진술처럼 인간의 돌봄과 치료를 돕는 로봇이 '인간의 상태 정보'에 대한 입력에 '감정적인 행동'이라는 출력을 산출하더라도, 이를 진정한 의미의 감정에 따른 인간과의 상호작용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로봇은 〈보기〉에서 말하는 강한 인공 지능보다는 약한 인공 지능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05 ★★★★★

정답 ②

정답 해설

'감정 과정에 대한 계산 모형'은 18번 문장에 나오는 '입력 자극에 대한 적절한 출력을 내놓는 행동들의 패턴'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4문단과 5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로봇은 감정을 계산하는 것일 뿐 내적 감정을 생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감정 과정에 대한 계산을 내적 감정 경험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⑥는 선지처럼 바꿔 쓸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3번 문장에서 인공 지능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성의 핵심을 감정으로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28번 문장을 보면, 진정한 감정이 없는 로봇을 도덕 공동체에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했으므로 ③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도덕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③은 '도덕 공동체에 속하는'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③ ㉔에서 말하는 '이러한 감정 경험'은 13~15번 문장에서 말하는 인간의 감정이 하는 역할과 관련한 경험임을 알 수 있다. 13~15번 문장에서 감정은 개체의 생존과 유지를 돕는 역할, 추구하고 회피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동기의 역할,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정서적 교감을 하여 공동체를 유지하는 역할 등을 한다고 하였으므로, ㉔는 '감정을 통해 동기를 얻거나 교감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로 바꿔 쓸 수 있다.
- ④ 19번 문장에서 행동의 동등성이 ㉔ '심성 상태의 동등성'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동이 같더라도 감정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행동을 해도 사람마다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반대로 같은 감정을 느껴도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해준다. 즉, 행동의 동등성이 함축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므로 ㉔는 '서로 같은 감정의 상태임을'로 바꿔 쓸 수 있다.
- ⑤ 26번 문장을 보면, 로봇이 내적 감정을 지니기 위해 일반 지능까지 도달하는 길은 아직 멀며, ㉔ '제한적인 영역에서 주어진 과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출하는지 이외의 문제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말한다. 즉 여기서 ㉔는 감정에 관한 문제를 지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㉔는 '감정을 갖는지와 같은 문제들은'으로 바꿔 쓸 수 있다.

2022 LEET에 출제되었던 지문이다. 이 지문에서의 관건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 ① 지문의 50%라고 할 수 있는 1문단의 독해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독해의 방향성의 차이가 보였을 것이다.

1번 문장부터 P가 제시되고 있고 3번 문장에서 본격적으로 환경 위기가 특히 '철학적 근대'에 관한 담론에서 중요 주제로 부각된다고 서술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잡지 못한 채로 5, 6번 문장으로 넘어갔다면 딜레마적 문제가 뭐고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했을 것이다. πππ 1문단에서부터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했다면 독해 자체가 동등 독해가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급한 마음에 항상 1문단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로 넘어갔다면 이 지문이 특히 어려웠을 텐데, 본인이 그러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 ② 2, 3문단에서 각각 제시되었던 데카르트주의와 칸트주의의 KEYWORD를 잡은 채로 4문단과 단락 간 연결을 하는 것이 크게 중요했다.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3번 읽고 KEYWORD를 잡는 것은 주구장창 들어서 지겨울 정도다. 그런데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실천을 하는 것은 다르다. 두 가지 개념에 대한 KEYWORD를 잡지 않은 채로 4문단에 넘어갔다면 그래서 객관적 관념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데? 이렇게만 생각이 들 뿐 정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객관적 관념론은 데카르트주의와 칸트주의에 대한 설명과 대립적인 내용이니, 두 개념에서 뽑아낸 KEYWORD와 객관적 관념론 사이의 의식적인 대립각을 세워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었어야 한다.

01 ★★☆☆☆

정답 ④

정답 해설

5, 6번 문장에 따르면 '숭고한 인본주의적 가치들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지성적·실천적 자율성을 주창한 철학적 근대를 통해 정초되었기 때문'에 '철학적 근대는 경시할 수 없는 미덕을 동시에 지'닌다. 1~4번 문장의 내용은 '철학적 근대'가 환경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본주의적 가치들을 정초했다는 점에서 '철학적 근대'를 마냥 거부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1문